君の知らない物語

いつも通りのある日の事
君は突然立ち上がり言った
「今夜星を見に行こう。」

「たまには良い事言うんだね。」
なんて皆して言って笑った。
明かりもない道を
バカみたいにはしゃいで歩いた
抱え込んだ孤独や不安に
押しつぶされないように。

真っ暗な世界から見上げた
夜空は星が降るようで、
いつからだろう
君の事を追いかける私がいた。

どうかお願い
驚かないで　聞いてよ
私の　この思いを。

여느때나 다를 것 없는 어느 날의 일
너는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오늘 밤, 별을 보러 가자.”

“가끔은 괜찮은 말도 하는구나.”
라고 모두들 웃으며 말했다.
빛도 없는 길을
바보처럼 들떠서 걸었다.
끌어안은 고독과 불안에
짓눌려버리지 않으려고.

캄캄한 세상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은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였을까
너를 쫓고 있는 내가 있다.

제발 부탁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줘
나의 이 마음을.

「あれがデネブ、アルタイル、ベガ。」
君が指差す夏の大三角、
覚えて空を見る。
やっと見つけた織姫(おりひめ)様
だけどどこだろう彦星(ひこぼし)様
これじゃひとりぼっち。

楽しげな一つ隣の君
私は
何も言えなくて

本当はずっと君のことを
どこかでわかっていた。
見つかったって　届きはしない。
だめだよ　泣かないで
そう言い聞かせた。

強がる私は臆病で
興味が無いようなふりをしてた
だけど胸を刺す痛みは増してく
あぁ、そうか　好きになるって
こういうことなんだね。

“저게 데네브, 알타이르, 베가.”
네가 가리키는 여름의 대삼각
떠올리며 하늘을 본다.
겨우 찾아낸 직녀성
그런데 견우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래서야 외톨박이일 뿐.

즐거워보이는 한 걸음 옆의 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줄곧 너를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듯
알아내더라도 전하지 못하지.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달랬다.

허세부리는 나는 사실 겁쟁이라서
관심없는 척 물리치고 있다
하지만 가슴을 저미는 아픔은 더해가서
아, 그런 건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どうしたい？　いってこらん？
心の声がする。
君の隣が良い
真実は残酷だ。

言わなかった　言えなかった
二度と戻れない
あの夏の日、煌めく星
今でも思い出せるよ。

笑った顔も、怒った顔も
大好きでした。
可笑しいよね、わかってたのに。
君の知らない私だけの秘密。

夜を越えて遠い思い出を
君が指をさす、
無邪気(むじゃき)な声で。

뭘 원해? 말해볼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네 곁에 있고 싶어.
현실은 잔혹하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했다
두번다시 돌아가지 못할
어느 여름날, 빛나던 별
지금도 기억이 나지.

웃는 얼굴도, 성낸 얼굴도
정말 좋아했다.
이상도 하지, 다 알고 있던 일인데.
네가 모르는 나만의 비밀.

밤을 넘어서 머나먼 추억을
네가 손짓한다.
티없는 목소리로.